

‘제5차 광주폴리’ 기후위기 대응 순환경제 ‘초점’

배형민 총감독, 프로젝트 발표

어셈블스튜디오 등 해외팀 참여 건축물 폐기물 재활용 등 추진 문화전당권·양동시장 등에 조성

건축업계에도 기후위기는 시대적 과제로 당면했다. ‘철거’ 없는 자원순환의 건축이 가능할까? 제5차 광주폴리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광주폴리는 (재)광주비엔날레가 지난 2011년 마련한 프로젝트로 광주 도심 곳곳에 문화적 힘을 군집시키기 위해 장식적 성격과 기능적 역할까지 아우르는 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이다.

배형민 제5차 광주폴리 감독(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은 8일 (재)광주비엔날레 제문헌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내용과 함께 참여작가, 큐레이터 등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광주폴리에 참여하는 건축 디자인 그룹인 ‘어셈블 스튜디오(Assemble Studio)’, ‘아틀리에 루마(Atelier LUMA)’, ‘비씨 아키텍츠(BC Architects)’ 소속 작가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지난 2일 광주에 도착해 오는 12일 출국하는 일정으로 순환 재료 개발을 위한 광주 및 전남·북 일대 현장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배형민 제5차 광주폴리 감독과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어셈블 스튜디오·아틀리에 루마·비씨 아키텍츠 소속 작가들이 8일 (재)광주비엔날레 제문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어셈블 스튜디오는 영국의 커뮤니티 기반 건축 디자인 그룹이다. 아틀리에 루마는 프랑스 아를에서 농어업 부산물과 폐기물의 재활용을 연구하는 디자인 및 리서치 연구소다. 비씨 아키텍츠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있는 건축 연구소로 건설 폐기물의 순환에 대한 독보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

배형민 감독은 제5차 광주폴리 역할을 기후위기에서 찾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도 순환 경제 체제로 향할 수 있는 ‘건축 시스템’과 ‘음식 문화’에 집중해 풀어나갈 계획이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재료 및 재활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광주 일대의 기후 및 생태에 대한 독보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졌을 유도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장소는 기존 광주폴리 작품들이 집약돼 있으면서도 광주폴리 돌레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전당권 일대와 오랜 시간 동안 광주 순환 체계의 역사와 공동체를 품은 광주 대표적 시장인 양동시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양동시장에서는 광주폴리와 우리밀의 협업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농수산

물유통공사(aT)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프로그램과 운영 체계 또한 구축하고 있다.

담양, 장성, 완도, 목포, 나주 기반 등의 다양한 생산자와 가공자를 연결하고, 광주지역의 산업체 및 시민 단체와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현대 및 전통 재료 활용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배형민 감독은 “이번 프로젝트에 선정된 참여작가들은 지역과 연령, 작가적 성향, 사용 재료 등에서 다양성을 갖고 있다. 이런 다양성과 함께 이들을 아우르는 공통분모는 위기에 처한 지구 환경과 시민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건축이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후변화 시대에 서 광주폴리가 행동하는 시민들의 거점이라는 점에 모두 동감해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배형민 감독과 어셈블 스튜디오, 아틀리에 루마, 비씨 아키텍츠 소속 작가들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제5차 광주폴리 공공 프로그램 ‘결과보다 과정: 건축물은 섬이 아니다’를 진행한다. 발표하는 친환경 건축재료 개발 연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순환폴리’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강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지난 5일 미국 샌안토니오 토티 센터에서 초청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제공

광주시향, 미국 샌안토니오 초청공연 성료

교민 등 1700여명 성향 ‘아리랑’ 등 연주 호응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지난 5일 미국 샌안토니오 토티 센터에서 초청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해외 공연은 현지인과 교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아 1700여석 공연장이 가득 찼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 있는 샌안토니오시는 광주시와 자매결연 40주년을 기념해 두 도시 간 문화예술 교류를 희망하는 취지로 광주시향을 초청했다. 지난해 도이치 그라모폰(DG) 음반발매와 이번 미국 초청공연으로 세계무대로 도약한 광주시향은 국제적인 인지도를 구축해가고 있다.

창단 이래 첫 미국투어인 이번 공연에서 흥석원 예술감독과 단원들은 ‘아리랑’,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드보르작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를 연주했다. 지난 2020년 샌안토니오에서 개최된 구르비츠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입상자 피아니스트 김예담이 협연자로 나섰다.

이번 공연의 첫 포문을 연 아리랑 선율

은 가슴을 뭉클하게 해 많은 교민의 눈시울을 붉혔다. 이후 연주가 끝날 때마다 객석에서는 ‘브라보’를 연호하며 기립했다. 공연을 마친 뒤 론 니렌버그(Ron Nirenberg) 샌안토니오 시장은 흥석원 예술감독을 비롯한 모든 단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표창장을 수여했다. 더불어 수많은 시 고위 관계자들이 공연에 참관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14년 전 고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한 최명숙씨는 “샌안토니오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은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게 해줬다”며 “낯선 땅에서도 수준 높은 연주를 보여준 광주시향에게 감사함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연을 관람한 현지인 에리카 히스(Erika Hicks)는 “교향곡에서 보여준 최상의 호흡과 광주시향의 음악적인 해석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한편 샌안토니오 일정을 마친 광주시향은 휴스턴으로 이동해 9일(현지 시각) 오후 ‘From the New World’를 주제로 휴스턴대학교 켈튼 홀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도선인 기자

“여성신진작가 ‘女新 나르샤’ 찾습니다”

전남여성문화박물관 공모전 전남여성재단, 4월28일 마감

전남여성가족재단이 도내 여성신진작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남여성문화박물관 공모전 ‘女新 나르샤’ 참여자를 모집한다.

‘나르샤’는 날아오르다는 순 우리말이다.

이번 공모전은 개인전 경력이 없는 지역 여성신진작가를 발굴, 지원하는 등용문 역할을 하는 공모전이다. 당선자에게는 생애 첫 개인전에 필요한 전시장소 대여 및 전시 리플릿 제작을 지원하며 당선자 특전(작품 사진 촬영과 작품 평론 중 택 1)을 추가로 지원한다.

전남여성문화박물관 생애 첫 개인전 지원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 여성

문화예술 보급 확대를 위해 온라인 전시(유튜브·블로그)를 병행하고 있다.

생애 첫 개인전 지원을 위한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는 4년 동안 12명으로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시 기회를 확보하고 미술작품을 수집하는 컬렉터에게 작품을 판매하는 성과가 거둔 바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거나 활동 중이며 개인전 경력이 없는 여성문화·예술인이다. 모집부문은 여성문화·예술 전 분야(미술·회화·조소·금속·도예), 공예(가죽·한지·천연염색·규방 등), 복식, 디자인 등이다.

당선자 선정은 심사기준에 따라 적합성, 작품성, 향후 성장 가능성, 기타 항목을 총 100점으로 심사해 최종 3명을 선정한다.

온·오프라인 전시 활성화를 위해 본인

의 전시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제안할 경우 가산점이 주어진다. 당선자는 전남여성가족재단 누리집을 통해 5월 초 공지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4월 28일까지며 신청방법은 이메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남여성가족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교육·사업팀(061-260-7331)으로 하면 된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직무대행)은 “여성나르샤 공모전은 학력, 수상실적 등 외부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오로지 작품으로만 심사한다”며 “공모전을 통해 첫걸음을 내디뎠던 작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묵묵히 예술작업을 하는 여성신진작가들의 많은 지원 기다린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ACC 초이스’ 인기 연극 ‘아트’ 광주 무대

이순재·백일섭·노주현 출연 3월10~11일 ACC 극장2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우수공연 초청 프로그램인 ‘ACC 초이스’의 첫 번째 작품으로 인기 연극 ‘아트’를 오는 3월10일과 11일 ACC 예술극장 극장2 무대에 올린다.

ACC재단에서 추진하는 ‘ACC 초이스’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체성 및 계기성에 적합한 우수 공연을 발굴해 초청하는 대중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5개 작품을 선정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우수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연극 ‘아트(사진)’는 프랑스 극작가 야스미나 레자(Yasmina



Reza)의 대표작이다. 탄탄한 구성과 통렬한 대사, 사실적 캐릭터가 압권인 작품으로 현재까지 15개 언어로 번역되어 35개국에서 공연되고 있다. 몰리에르 어워드, 로렌스 올리비에 어워드, 이브닝 스탠다드 어워드, 토니 어워드, 뉴욕 비평가협회 등 세계 주요 연극상을 거머쥐며 세계가 인정하고 사랑하는 연극임을 증명했다.

이 작품은 오랜 시간 이어진 세 남자의 우정이 허영과 오만에 의해 얼마나 쉽게

깨지고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지를 일상의 대화를 통해 보여주는 블랙 코미디다. 인간의 이기심부터 질투, 소심한 내면까지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한국 공연은 ‘꽃할배’로 불리는 유명 노배우들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반세기가 훌쩍 넘은 연기 관록과 연륜으로 색다른 웃음을 선보일 꽃할배팀에 이순재, 백일섭, 노주현이 출연한다. 젊은 배우팀은 박은석, 박정복, 최재웅이 맡았다. 이번 작품은 배우들의 연기력과 친구 세대의 조합으로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일정별 출연 배우는 AC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연은 3월10일 오후 7시30분, 3월11일 오후 2시와 5시30분 등 총 3회 진행된다. 관람료는 R석 5만원, S석 3만원이며, 9일부터 ACC 누리집(www.acc.go.kr)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